

9/4/22

설교 제목: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8 장 31-59 절

- (요 8: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 (요 8: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 (요 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 (요 8:35)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절판주** 창 21:10, 갈 4:30
- (요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 (요 8: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 (요 8: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 (요 8:39)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 (요 8: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요 8:41)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 (요 8:42)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 (요 8: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라

(요 8:45)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8: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 8: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 8: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요 8: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요 8: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요 8: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 8:52)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 8: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절관주** 요 4:12

(요 8: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요 8: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요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절관주** 히 11:13

(요 8:57)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요 8: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 8:59)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인간은 누구나 마음 속 깊은 곳에 억압 절망 죄 죽음 등의 문제로 인해 괴로와 하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답을 주십니다.

(요 8: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에 거하면 억압 절망 죄 죽음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철학적 추상적 개념의 진리가 아니고 절대불변의 유일한
진리로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한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위, 하늘로부터 오신 진리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요 8: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의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30 년이나 종살이를 했고 당시도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적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겨왔으며 다른 어떤 이방신도 섬긴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영적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우상을 섬긴 적이 여러번 있기는 합니다)

그들이 외식은 하지만 계약 신관은 확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아브라함을 계약의 머리로 정하신 고로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 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 8:35)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요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니 자연 죄의 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속량받지 못하여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히 누릴 자이시며 우리를 구속할 권세를 가진 구속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 8: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 8: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 8:39)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요 8: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기뻐하던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셨던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사탄 마귀에게 들은 것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요 8:41)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니로다

(요 8:42)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터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커녕 도리어 죽이려 했기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 8: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유대인을 가리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 8:45)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8: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 8: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도리어 그 사실을 지적한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요 8: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타락한 자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욕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모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 8: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요 8: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무지한 유대인을 향해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시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욕된 말을 합니다.

(요 8: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 8:52)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 8: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들은 자신이 영생을 하여야 다른 사람도 영생하게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나? 선지자들과 아브라함도 다 죽지 않았는가?고 논리를 전개하며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논리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나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모순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라 칭하는 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8: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요 8: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요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와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신앙이 형식 뿐이고 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창 22:18)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 22:18)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시게 될 것을 내다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은 약속대로 성취되었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고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 8:57)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요 8: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하자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요 8:59)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지 않은 연고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삽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소망없이 삽니다.

그런데 이같은 소망없는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사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